



### 재배상점

# 홍화,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능 배수 잘되는 모래 참흙이 좋아

**문** 홍화재배를 희망하는 농민입니다. 홍화씨는 재배경험 없이도 재배가 가능한지요. 재배법과 적합한 토질, 또 종자구입 요령이나 수확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연복(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동 256번지)

되면 뽑아 태우고, 진딧물은 발생초기에 방제합니다.  
꽃잎 수확은 담홍색이 되는 개화후 5일째에 오전 9~10시경에 채취하는 것이 좋고, 종실은 개화후 25~30일쯤(7월 하순~8월 중순)에 경엽이 황갈색으로 변하여 씨가 여문 것을 확인한 후 베어서 햇볕에 말

와 섞어 평당 2홉(60kg/10a) 살포하고 화학비료가 아닌 미생물 발효 퇴비와 완전부식된 인분과 초목회를 첨가하거나 활성탄이나 목초액을 살포하면 더욱 좋습니다.  
연작피해가 있으면 황토 객토와 서목태 재배지와 윤환 재배하며 파종은 골뿌림하고 8~15일 후에 솟아주

25~30일이된 완숙한 것만 따서 햇볕 건조 탈곡후에 토기그릇(항아리등)에 쪼갠 발마늘을 적당히 넣어 보관합니다. 그외 재배방법은 일반재배를 응용하면 됩니다.  
**종자구입 요령**  
종자구입 요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97년)에는 잇꽃이 수정시기에 강우와

그외에 종자선택에서 주의할 것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개화시기가 맞지않아 수확할 수 없는 품종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수입산 구별요령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래종에 비해 작고 하얗고 무거우며 꽃잎 붙었던 자리에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외에 아주 얇이 굵은 것과 길쭉한 것도 있습니다.  
<경남 함양 약초 시험장 김만배 품질이용연구실장, 0597-63-8783>

**답** 잇꽃(홍화)은 4천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재배되어온 염색료, 식용유용의 작물이나 동양에서는 한약재, 화장품, 필묵등으로 이용하다가 근래에는 민간에서 속골효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배환경을 보면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며 몇 가지만 주의하면 특별한 경험없이도 재배하기 쉬운 작물입니다. 개화기에 비가 적을수록 좋고 토질은 배수가 잘되는 모래 참흙이 가장 좋으나 건조하면 좋지 않습니다. 재배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병충방제는 콩깍지 태운 잿물이나 어성초 등으로 만든 청초 발효액비

린 다음 씨를 푼다. 이때 수량은 3백평당 꽃잎은 15kg 종실은 80~90kg정도 되고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 유기 농재배법

두 번째는 민간전래 유기 농재배법으로 수확량은 적은 편입니다. 본밭은 4~7년 농약을 치지 않은 밭에 파종 15~20일전에 유허가루를 곱게 채로 쳐서 모래

며 포기사이 15cm 정도가 적당하며 파종량은 3백평당 2.5~3kg 소요됩니다. 종경 제조는 여러차례하고 할 때 마다 복돋아주어 도복을 예방합니다. 병충방제로는 콩깍지나 메밀껍데기를 태운 잿물, 하얀 진액이 나오는 민들레 무화과잎, 오동나무 잎, 썩바귀, 썩, 마늘, 양파, 어성초 등으로 만든 청초발효액비를 사용합니다.  
수확할때는 매일 개화후

저온에 의해 수정이 되지 못한 종자와 수정이 되어도 알이 차지 못한 것이 많아 꽃잎이 붙었던 자리가 황색을 띠며 전체가 운택한 우량종자도 발아율이 80% 정도이고 색상이 거므티티한 것은 발아율이 50% 정도이므로 파종량을 곱으로 늘려야 합니다. 파종시 종자를 4~5시간 물에 담궈 가라앉은 것만 취하여 1~2립씩 파종하기도 합니다.

### 재배기술 상담 받습니다

평소 생약재배현장에서 부딪치는 기술상의 문제점이나 궁금한 생약정보를 전화나 팩스로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달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대산 B/D 301호 한국생약협회 편집부 (우편번호 130-062)  
▲전화번호 02-967-8133  
▲팩스 02-965-0643

### 일반 재배법

첫째는 일반재배법으로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종은 3월 하순~4월 상순 사이에 3백평당 퇴비 1000kg, 인분 750kg, 용과린 또는 용성인비 20kg, 초목회 37kg의 밑거름을 넣고 정지한 다음, 두둑 120cm, 고랑 30~40cm로 하여 30x15~20cm 4열로 된 흑색 유공비닐을 덮어 2~3립 파종하고 목초회를 섞은 흙을 덮으면 좋고, 3백평당 종자 1~2kg이 필요합니다. 주요 관리는 어린묘가 나오면 1차숙을 하고 더 자라면 다시 솟음하여 1주만 남겨 두며 중경제조합니다. 우기에는 배수에 유의하고 장기간 가뭄에는 관수하며 태풍오기전에 도복방지용 줄을 칩니다. 병충해는 질소과다와 배수불량에 의해 생장이 멈추고 잎 줄기가 오그라들어 노랗게 되는 위축병이 발생

### ■알아봅시다 -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발생 했을때

## 인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요청

사업자와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농민 스스로 계약서를 요구하되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 내용에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반품(문제 발생시에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처리·수매방법·투자금액 보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관련작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참고하거나 농촌지도소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 기술 지도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천마나 복령에 관한 영농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영농교육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인근의 대한법률 구조공단이나 농협(지역농

협)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요청을 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농민이 바로 소송을 통해 구제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어려운 법률문제를 다루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 말고도 농업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즉 기후·비료·농약·씨앗·토질·핵거리·관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또 하나는 피해원인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일부 수확을 해 이미 출하했을 수도 있다. 또 정상적인 생산량을 얼마로 볼 것인가 등 그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앞서 농민 소비자를 구제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면 이와같은 어려운 점을 도움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국번없이 132번. 한국소비자보호원 : 전화 02)3060-3000번